

---

서 평

---

[www.kci.go.kr](http://www.kci.go.kr)



## 살인사건에 투영된 100년 전 사회상의 해부

[서평] 김호(2018), 『100년 전 살인사건

—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400쪽.

심재우\*

###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검안을 소개한 본격적인 저술

잘 알려진 것처럼 역사가는 자신의 역사관,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료를 취사선택하고 분석하여 우리들에게 지난 과거를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자라 하더라도 사료가 뒷받침되는 않는 한 가설이나 추정만으로 지난 먼 옛날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역사 연구에서 사료(史料)가 갖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역사 관련 기관이나 학계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다양한 사료의 수집, 정리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대 실상에 좀 더 접근해갈 수 있는 증거들의 축적을 위한 것인 셈이다.

물론 어떤 사료가 주목을 받고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시대사 연구를 예로 들면 정치적 사건이나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사회경제의 물질 토대, 거시적 변동에 관심이 컸던 시기에 주로 활용하던 사료와 최근 민중생활사, 문화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면서 새롭게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는 사료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세기 한국사 연구의 강한 이념지향성, 사회구조의 변동과 해체라는 거대 담론에의 경도 경향을 비판하면서 당대인들의 미시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중 및 지역사 자료, 일기, 고문서, 소송 및 재판문서 등이 주목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이 된 경인교대 김호 교수의 저작 『100년 전 살인 사건』 또한 불과 20여 년 전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검안(檢案) 자료를 연구에 적극 이용한 성과이다. 검안(檢案)은 조선시대 살인, 자살 등 인명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맡은 담당 관리가 관련자들을 신문하고 시신을 검시하여 상부 기관에 올린 보고서를 말한다. 검안은 검시문안(檢屍文案)을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두 번 이상의 검시를 거쳤다. 시신이 소재한 해당 고을 수령과 이웃 고을 수령이 각각 검시관이 되어 사망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당대인들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인명 사건의 처리를 매우 신중히 했음을 의미한다.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정확한 검시를 통한 철저한 수사였던 것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검시,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담긴 자료가 바로 검안이었다.

무엇보다도 검안에는 검시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 기록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사실 그동안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활용한 연대기, 문집 등 기존 사료들에서는 글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의 목소리가 애초부터 담기기 어려웠다. 그나마 이들의 목소리가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글쓴이에 의해 한 차례 가공된 형태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며

자신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있는 검안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드문 사료임에 분명하다.

저자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처럼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검안 자료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약 500여 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성된 시기는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대한제국 시기이다. 물론 그 이전 시기 검안의 내용을 연대기, 지방관 보고서 등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검안 원본은 아니다. 저자는 20여 년 전부터 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검안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을 수행하면서 간간히 검안의 내용과 자료 가치를 학계에 소개한 바 있는데,<sup>1)</sup> 본서는 그와 같은 오랜 작업의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분석에 앞서 먼저 저자의 본서가 검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여 년 전에 저자의 자료 소개 이후 검안을 다룬 연구 논문이 간간히 제출된 적은 있지만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저술로 정리된 적은 아직 없었다.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검안을 분석한 『살인의 진화심리학 — 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 살해』<sup>2)</sup>란 책이 출간되었지만, 이 책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본서의 저자 김호 교수의 글을 제외하면 검안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서 『100년 전 살인사건』은 처음으로 시도된 한국사 연구자의 상세한 검안 분석서라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아무도 하지 못한 첫 작업이 힘든 법이다. ‘소민들의 욕망과 삶의 흔적이 가득한 검안’(383쪽)을 분석한 본서는 저자의 검안 연구의 본격화를 알린 신호탄이란 점에서 무척 반갑지 않을 수 없다.

1) 검안에 대해서는 1980년대 법사학자 심희기가 최초로 그 가치를 소개하였고, 평가 또한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내용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저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첫 결실이 다음의 논문이다. 김호(1998),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학회.

2) 최재천·한영우·김호·황희선·홍승효, 서울대학교 출판부(2003).

## 2. 내용 구성의 특징과 본서가 이룬 성과

본서는 살인,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과 비극이 아로새겨져 있는 검안 속의 100년 전 사건들을 역사 연구의 사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본 저작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본서가 갖는 연구사적 의미 내지 성과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책의 구성과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자.

본서는 크게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세 건의 검안 속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주제는 ‘일상의 폭력’, ‘향촌의 실세’, ‘인륜의 역설’, ‘욕망의 분출’, ‘변화하는 세상’인데, 아마도 저자는 이 시기 검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시대상황, 사회변화가 이들 다섯 가지 테마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먼저 ‘일상의 폭력’에서는 당시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폭력의 양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들을 배치하였다. 양반집 부인이 상놈과의 불륜을 저지르자 그 부인의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경북 문경의 황씨부인 사건, 첩이 남편과 본처 사이에서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경기도 강화의 나씨 자살 사건, 마을 난봉꾼이 술에 취해 40대 여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충남 면천군 조태원 사건 등이다. 저자는 이들 사건들이 비록 예외적이긴 하지만 당시 농촌사회에서 종종 목도되었던 불행한 일상의 하나였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다.

‘향촌의 실세’에서는 문중, 계, 결사 등 지역사회의 권력 조직들이 빚어내는 횡포와 폭력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권씨 문중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집안사람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경남 산청군 김조이 사건, 광산김씨들이 자신들의 선산(先山)에 투장(偷葬)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고문을 가하여 죽게 한 강원도 회양의 김갑산 사건, 향촌의 이익집단과 사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

건을 다룬 평북 용천군과 황해도 신계군의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지역 공동체 내의 여러 사회조직이나 결사가 지역사회에 끼친 부정적 해악의 단면, 또한 향촌 내부 제 집단의 여러 갈등과 위력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

‘인륜의 역설’에서는 성리학적 도덕규범의 상징인 인륜(人倫)의 실천, 가족을 위한 복수 행위가 참혹한 인명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인륜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살인, 자살이라는 파국으로 끝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병 치료를 위해 아이를 죽여 그 간을 먹은 나병환자를 아이의 아버지가 살해한 전북 남원군의 김판술 사건,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남편을 죽인 딸을 생모가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인 강원도 양구의 김암희 부부 사건,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자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충남 서산의 유씨부인 사건 등이다. 저자는 특히 이 주제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나 사유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 이를 저자는 ‘성리학의 세속화’로 본다. 이 부분은 뒤에서 그 의미를 따져보기로 한다.

‘욕망의 분출’에서는 여성, 재물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다. 요즘도 마스크를 통해 확인되는 많은 범죄가 치정에 얽혀서,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사건들을 통해서 원초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적어도 고금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오랫동안 간통을 한 보부상의 아내를 남을 사주하여 살해한 강원도 지평의 김정선 사건, 돈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첩과 간통을 했다고 뒤집어쓰워 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충북 회인의 김학서 사건, 돈에 눈이 멀어 오랫동안 마름으로 있었던 집안의 주인을 살해한 경기도 여주의 김인규 사건 등이다. 100년 전 사람들의 욕망이 빚어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이들 사건을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화 과정

에서의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여기에 동학농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동학교도를 폭행하여 죽게 한 전남 광양군 이학조 사건, 야소교인(耶蘇敎人)이 섬 주민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2개월 만에 죽은 경기도 인천 영종도 조문주 사건, 당시의 어려운 시국을 비판하여 유서를 남기고 죽은 황해도 서흥군수 최동식 사건을 배치하였다. 새로운 종교의 유입,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 등은 이 시기의 나라 상황의 중대 변화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저자는 이들 사건을 통해 독자들이 시대상의 변화를 읽어주기를 기대한 듯하다.

이상 살펴본 구성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서는 주제별로 관련 검안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분량도 안배하여 이 시기의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독자들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자가 그동안 규장각의 다양한 검안을 직접 검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라 생각한다. 특히 해당 사건 전개과정을 검안 속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세밀하게 복원하고 있는 점이 큰 미덕이다.

사실 본서처럼 검안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비록 저자에 의해 간단한 해제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검안은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다. 또 검안의 신문 기록 속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지루한 법정 공방 문서들을 읽어본다고 생각해보라. 양측이 쏟아내는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조합하여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요즘도 범행 관련자로 몰릴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죽을힘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려고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과학적 수사기법, 수준 높은 법의학을 갖추는 못한 당대에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확정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또한 저자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대인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생생하

게 그려내려고 노력하였다. 사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감정이나 생활, 법 관념, 윤리의식, 의식주 등등. 본서의 부제가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라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100년 전 사람들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려는 노력은 저자의 꼼꼼한 검안 독해로 인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학계의 검안 연구가 소개되면서 콘텐츠가 빈약하거나 상상력에 기대 쓴 유사한 대중서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라 확신한다. 자료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창작된 글들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이상의 성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검안 연구의 향후 과제와 제언

잘 알려진 것처럼 증세 유럽인들의 미시적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평가받는 글들이 얼마 전까지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치즈와 구더기』,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책의 저자는 재판 과정에서의 신문이나 진술 등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증세시대 유럽인의 삶과 세계관, 의식과 생활 문화 등을 매우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 성공하였다. 김호 교수의 본 저서를 읽으면서 평자는 검안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100년 전 사람들의 삶에 더욱 ‘미시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역사가들이 늘 꿈꿔왔던 생각들, 즉 정치적 격변 속에서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이들의 진솔한 삶의 진면목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작업이 머지않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다. 평자는 바로 이 점이 김교수의 『100년 전 살인사건』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장 값진 메시지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본서는 저자의 오랜 검안 연구의 중간 결산으로 저자의 진지한 고민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아니 아직 일천한 이 방면 연구가 갖는 한계에서 본서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해야 할 듯하다. 먼저 형식의 문제인데, 본서는 짧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외에는 내용 모두가 15편 검안의 내용 소개에 치중하고 있다. 서론과 결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이는 애초 본서가 전문연구서보다는 대중역사서로 기획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중서에 검안 연구의 쟁점이나 저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장황하게 서술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검안 자료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저자의 중간 결산이라는 점에서 평자는 저자가 본서에서 관련 연구자를 위해서 검안 연구의 현황, 분석 방법론과 문제의식, 이들 15종의 검안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야심차게 정리해주길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동료연구자로서 저자에게 교시를 받고 싶은 평자로서는 핵심이 빠진 듯한 허전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검안의 내용 분석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인과관계나 정황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언뜻언뜻 발견되기도 한다. 사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검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또 현실은 영화나 연극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자가 검안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힘든 작업임을 잘 알고 있지만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하는 독자 입장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예컨대, 강원도 양구군 김암회 부부 사건을 다룬 ‘남편을 죽이고 어미의 손에 죽다’ 부분에서는 시집간 딸이 남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위를 죽인 딸을 친정어머니가 목 졸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딸이 시댁에서 살기 싫어 현실을 벗어나고자 남편을 죽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정작 그녀가 왜 시댁에서의 생활을 힘들어 했는지, 남편과는 어떤 불화와 갈등이 있어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는지, 가버린 여성으로 어떻게 남편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 남편을 죽이고 찾아온 딸을 친정어머니가

처음에 어떻게 대했으며 결국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저자의 서술은 그 대강을 알려 주고는 있지만, 사건 속 인물들이 벌인 돌출(?) 행동의 인과 관계나 필연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검안 속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다 보니 검안 이외의 자료가 적극 활용되지 못했고, 법제도나 재판 판례가 갖는 의의 보다는 사건의 줄거리 소개에 치중한 경향도 없지 않다. 본격 연구서로서 준비된 것이 아니다 보니 검안 속 진술의 복원을 넘어 신문 이후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도 소략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자가 여러 저작들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이들 저작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나 소개는 부족하다. 예컨대 저자는 ‘100여 년 전 유교의 가치와 여성을 둘러싼 감정체제(emotion regime)는 일반대중의 사고방식 안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183쪽)고 지적하면서 『감정의 향해』(윌리엄 레디 저, 김학이 역, 문학과 지성사, 2016)를 각주에서 소개한다. 그런데 이른바 ‘감정체제’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맥락, 이를 다룬 역사가 갖는 가치를 더 이상 서술하지 않고 있다. 문외한인 평자로서는 참고도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다른 독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본서가 참고한 주요 저술에 대한 친절하고도 상세한 설명의 누락은 다른 부분에서도 일부 발견되는데, 이는 저자의 생각을 독자가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저자의 이 시기 살인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시기 많은 살인 사건을 “성리학의 교화에 젖은 소민들이 군자를 욕망하고 공분과 공익에 참여하려는 인정 투쟁”(383쪽)으로 보고 있다. 즉 충, 효, 열의 유교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족을 위한 복수, 혹은 이와 같은 가치 실천을 위한 의로운 살인이 자주 빚어졌다는 것인데, 저자는 이를 다른 곳에서 ‘유

교의 세속화와 더불어 예교(禮敎)의 어두운 이면’(179쪽)이라고 보았다.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

물론 조선후기에 성리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유교 가치규범이 평, 천민들에게 내면화되고 있었을 개연성은 크다. 실제로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에서도 가족을 위한 살인, 정절을 지키기 위한 여성의 자살 등 저자가 주목한 사건들이 간혹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 사회의 범죄 행위는 사회적 환경,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성리학의 세속화’라는 명제를 다양한 갈등이나 비이성적 분노로 표출된 살인, 자살 사건 일반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원초적 욕망이나 편협한 분노 때문에 해서는 안될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의로운 복수를 감행했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이들을 유교의 교화에 젖은 소민이라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모든 범죄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해당 검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성리학적 윤리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틀로 환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너무 단순화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궁금하다.

본서는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검안 자료를 사료로서 적극 활용하여 우리들에게 검안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본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향후 연구 방법론의 모색을 통한 후속 작업이 저자와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